



여행경력 재개념화에 관한 연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The reconceptualization of travel careers: Application of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ory

황 영 주* · 이 훈**

Hwang, Young-Ju · Lee, Hoon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여행경력(travel career)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하위요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여행경력 개념이 관광학 분야에 제시된 이후, 여행경력이 유발하는 여행자의 동기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여행경력의 효과와 영향은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개념이 아직 체계적이고 타당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동우, 2019). 구체적인 선행연구의 한계는 1) 여행경력 개념의 비일관성 2) 하위요인에 대한 논의 부족 3) 여행경력을 '행동', '정서' 만으로 측정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여행경력의 개념과 하위요인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여가학 분야의 전문화(specialization)이론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를 적용하여, 여행경력의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여가활동의 참여수준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관광학 분야에서도 경력의 개념과 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Pearce & Lee, 2005).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여행경력에 대한 일관적 개념과 하위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여행경력을 재개념화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을 적용하여 행동, 인지, 정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여행경력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특히 인지적 차원은 여행경력 관련 연구에서 논의가 매우 미흡했던 부분으로 여행경력 개념의 이론적 체계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연구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여행경력,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여행경험

Received March 11, 2022 Revised April 13, 2022 Accepted April 28, 2022

* 이 논문은 황영주 박사학위논문 중심적으로 작성되었음. This work was prepared based on the first author's dissertation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9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C2A02082896)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연구교수. e-mail: hyj920@hanyang.ac.kr

Ph.D.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hoon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ABSTRACT: Since Pearce (1988) first suggested the concept of travel career in the tourism field, variou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mainly focused on travel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induced by different travel careers. However, the effect and influence of travel careers varied across studies, indicating that the concept has yet to achieve a systematic and valid theory structure (Ko, 2018). More specifically, the limits of previous research are: 1) inconsistency of travel career 2) There is no discussion of subelements. 3) evaluating a travel career solely on the basis of "behavior" and "affe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raw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of a travel career and expand the discussion on subelements. In the field of leisure scienc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is explained by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ory. Previous research has found that travel experience encompasses a variety of leisure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that theoretical structure on leisure phenomena provides a significant lead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experience (Ko, 2017). On the basis of such a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applies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ory to the conceptualization of travel careers. The main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while the concept of travel career lacked consistency and subelements, it considered problems drawn from prior studies and developed a systematically complemented measurement tool. Also, with the application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ory, a travel career was constructed with multiple dimensions, including subelements of behavior, cognition, and affect. In particular, the cognitive dimension was scarcely discussed in prior research and it made a contribution to the expansion of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travel career concept.

Key words : Travel Career, Recreation Specialization, Travel Experience

I. 서론

관광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지속적인 여행참여를 '여행경력(travel career)'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고동우, 2018; Pearce, 1988; Pearce & Lee, 2005). 경력의 개념을 여행 분야에 적용하여 처음으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Pearce(1988)로, 관련 개념은 여행경험의 누적에 따라 개인마다 여행경력을 다르게 형성하게 되고, 축적된 여행경력의 수준에 따라 여행 동기가 달라지는 것을 주장하였다(고동우, 2018; Pearce, 1988, 1991, 1993; Pearce & Lee, 2005). 그는 Maslow(1970)의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을 바탕으로 여행경력에 따라 여행 동기가 달라지는 여행경력사다리(travel career ladder: TCL)모형과 여행경력패턴(travel career pattern: TCP)모형

을 개발하였다.

여행경력이 유발하는 여행자의 심리 변화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TCP 모형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김동연·윤지환, 2013; 송화성, 2015; 이상훈·고동완, 2012; 임지현·이계희, 2010; Filep & Greenacre, 2007; Lee, 2004; Paris & Teye, 2010; Pearce & Lee, 2005; Song & Bae, 2018). 하지만 여행경력에 따른 여행자 동기 변화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것은, 연구마다 여행경력 개념이 상이하게 개념화되었고, 측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행경력 수준을 Pearce and Lee(2005)는 과거 여행경험(해외/국내)으로, Filep and Greenacre(2007)는 여행횟수(해외/국내), 여행지 수(해외/국내), 최근 5년 간 축적된 여행시간 양(해외/국내)으

로 개념화 하였다. 또한, 임지현·이계희(2010)는 해외여행 횟수, 총 방문국 수, 해외여행 지속성, 주관적 경력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여행경력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여행누적에 따라 여행경험의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고동우, 2019; Getz & McConnell, 2011). 따라서 여행경력 개념이 여행자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행경험의 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동우, 2017).

한편 여가학 연구 분야에서 경력에 대한 생각은 전문화(specialization)의 개념으로 인정되어 왔다(Pearce & Lee, 2005).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는 현대인의 여가경향과 여가활동 참여수준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다양한 여가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되어 왔고, 관광학 분야에서도 '경력'의 개념과 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제시되었다(Pearce & Lee, 2005). Bryan(1977)에 의해 처음 제시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은 여가활동의 참여수준을 참여기간, 빈도, 강도로 측정했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현대인의 여가활동 경향을 잘 반영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김미량, 2012; 이문진, 2017; Dittion, Loomis, & Choi, 1992).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에서는 연속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가참여 현상의 측정문제가 중요한 연구로 인식되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많은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졌다(이문진·박일혁·황선환, 2011). 전통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과거경험 등의 행동 차원을 중심으로 측정 되었으나 단일 차원의 측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인 비난을 받으며 행동, 인지, 정서 차원으로 발전하여 개념화되었고(McIntyre & Pigram,

1992), 현재까지 다차원적 측정을 통한 합산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송영민, 2010; 황선환·강형길·이문진, 2016; Vaske & Needham, 2007).

한편, 여행경력은 관련 연구마다 상이하게 개념화 되었고 측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로 여행경력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일치하지 않는 접근방식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서로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론에 근거한 일관된 개념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이문진 외, 2011). 여행경력 이론을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고동우, 2019).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여가활동 참여과정과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Dittion *et al.*, 1992). 여행경험은 다양한 여가행동의 특징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여가현상에 대한 이론적 체계는 여행경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동우, 2017).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여가 참여수준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을 적용하여 여행경력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하위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여행경험의 특징과(O'Dell, 2007; Otto & Richie, 1996), 주관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 경력의 개념(Russo, Guo & Baruch, 2014),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여행경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여행경력에 대한 주요 개념과 하위요소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요인과의 영향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여행경력 개념

1. 여행경력의 개념과 연구동향

1) 여행경력 이론

Pearce(1988)는 여행경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여행경험의 누적에 따라 개인은 각기 다른 여행경력을 형성하게 되고, 축적된 여행경력의 수준에 따라 여행자 동기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Maslow(1970)의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을 바탕으로 여행경력에 따라 여행 동기가 달라지는 여행경력사다리(Travel Career Ladder: TCL) 모형(이하 TCL 모형)을 발전시켰다. TCL 모형에 따르면 여행 동기는 여행경험의 축적에 따라 휴식 욕구에서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개발 욕구,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로 단계적이고 위계적인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Pearce & Lee, 2005). 즉, TCL 모형은 여행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여행 동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행경력은 예측 가능한 여행 동기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후 TCL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관련 이론은 개념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Blayney, 1998; Ryan, 1998; Todd, 1999). 대표적으로 Ryan(1998)은 영국의 휴가객들을 대상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여행경험 여부에 따라 여행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지만 여행 동기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인 아웃바운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동기 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기개발 욕구가 높은 여행자들은 여행경험이 적은 집단으로 나타나 TCL 모형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Pearce, 1996). TCL 모형은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욕구 위계 설정으로 단계 간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중복되었으며(김영국·

서보원·안태홍, 2011; Cooper, Fletcher, Fyall, Gilbert, & Wanhill, 2008), 사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욕구 단계 간의 계층적 요소를 강조하였다(Pearce & Lee, 2005). 이것은,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단계의 욕구가 발현되는 점, 하향적 발달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이었다(고동우, 2019).

이후, TCL 이론의 비판을 받아들인 Pearce and Lee(2005)는 여행 동기를 단계(ladder)가 아닌 유형(pattern)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다차원적 구조로 구성되는 여행경력패턴(travel career pattern: TCP)모형을(이하 TCP 모형)개발한다. 관련 모형은 수직적으로 변화하는 여행 동기의 발현보다 여행경력 수준에 따른 동기 패턴변화에 더 중점을 둔다(Pearce & Lee, 2005; Paris & Teye, 2010). TCP모형의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arce and Lee(2005)는 선행연구를 통해 74개의 여행 동기 항목을 도출하여 여행자들에게 각각의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자료는 호주 퀸즐랜드의 타운스빌(Townsville)과 케언스(Cairns)에서 수집 되었으며 연구 대상자는 서구 문화적 배경(호주 57%, 영국 22% 등)을 가진 여행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연구결과 설문대상자들이 향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 동기 요인은 총 14개로 ① 신기성(novelty) ② 일상탈출/휴식(escape/relax) ③ 관계강화: 동반자 관계 강화(relationship, strengthen) ④ 자율성(autonomy) ⑤ 자연(nature) ⑥ 자기개발: 현지문화 참여(self-development: host-site involvement) ⑦ 자극(stimulation) ⑧ 자기개발: 개인적 개발(self-development: personal development) ⑨ 관계: 안정감(relationship: security) ⑩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⑪ 고독(isolation) ⑫ 향수(nostalgia) ⑬ 로맨스(romance) ⑭ 인정(recognition)으로 도출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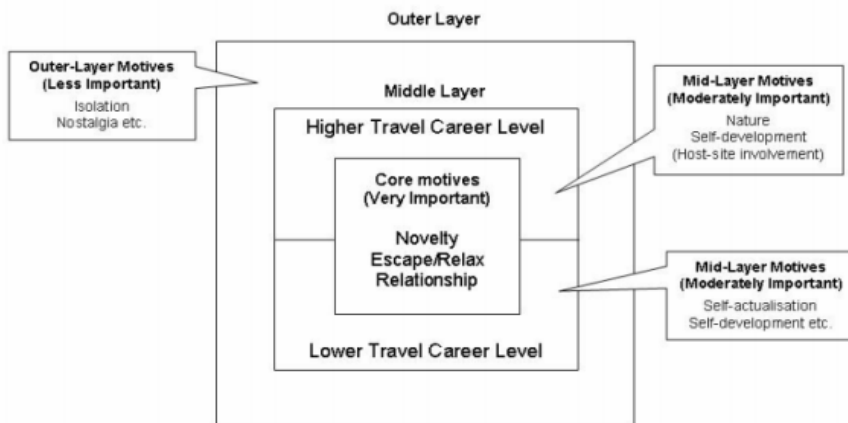
여행경력의 측정변수는 국내여행 경험, 해외여행 경험, 연령 변수로 사용되었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경험은 각각 4개의 그룹(무경험에서 많은 경험횟수)으로, 나이는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클러스트 분석 결과 높은 여행경력 그룹(49.1%)과 낮은 여행경력그룹(50.9%)으로 구분되었다. 여행경력과 여행 동기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행경력은 여행자의 여행 동기를 변화시켰는데, 세부적으로 여행경력과 관계없이 신기성(novelty), 일상탈출·휴식(escape/relax), 관계강화(relationship)동기는 모든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동기였다. 여행경력이 높은 그룹은 현지문화 경험(host-site involvement)과 자연(nature)을 추구하는 동기가 높았고, 여행경력이 낮은 그룹은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자기개발(self-development: personal development)을 추구하는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력에 따른 여행 동기 패턴은 TCP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여행 동기는 핵심동기(core motives)와 내적 동기(mid layer motives), 외적 동기(outer layer motives)로 구성되었으

며, 핵심 동기는 여행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였고, 중간층에 위치한 내적 동기는 여행경력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외적 동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즉, 여행경력패턴(travel career pattern: TCP)은 여행 동기의 동시 다발적 발현 가능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모든 여행객은 핵심동기를 지니고 있고 그 밖의 동기요인들이 동시발생하며 상호작용을 한다(고동우, 2019).

2) 여행경력 연구동향

여행경력패턴 TCP 이론(Pearce & Lee, 2005)의 타당성과 여행경력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동연 외, 2013; 이상훈·고동완, 2012; 임지현·이계희, 2010; Filep & Greenacre, 2007; Lee, 2004; Panchal & Pearce, 2011; Paris & Teye, 2010; Song & Bae, 2018). 임지현·이계희(2010)는 일본과 한국 여성관광자의 해외여행 경력에 따라 여행경력 집단을 세분화하여 추구편익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행경력에 상관없이 휴식, 모험, 자기개발은 가장 공통적으



Source: Lee, U. L. (2004).

〈Figure 1〉 Travel career pattern

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도출된 반면 활동추구, 문화추구, 관계추구 요인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행 동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동기가 있고 그 외 내적·외적 동기요인들이 여행경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제시를 통해 TCP 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TCP 모형에서 관계추구 요인은 여행경력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동기이며 문화적 체험은 여행경력이 많은 집단에서 높게 나와야하는 요인으로 TCP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상훈·고동완(2012)은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과거 여행경험(횟수)에 따른 여행 동기 차이를 질적 연구로 수행하였다. TCP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여행경험의 횟수로 구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처음', '5회 이하', '5회 이상' 여행자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Lee(2004), Pearce and Lee(2005)가 제시한 여행 동기 항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결과는 TCP 모형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TCP 모형에서 현지문화 경험과 자기개발에 대한 여행 동기가 높은 집단은 여행경력 수준이 높은 집단이었고, 내적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 동기는 여행경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훈·고동완(2012)의 연구는 여행경력이 낮을수록 현지문화 체험 등 외적 자기개발 동기가 높고 여행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내적 자기개발과 자아실현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lep and Greenacre(2007)는 TCP 모형을 적용하여 해외 유학생의 여행 동기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여행경험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행경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적 접근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의 도구로서 에세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여행경력 평가

척도를 개선하였다. 사용된 여행경력 측정척도는 ① 여행횟수(해외/국내) ② 여행지 수(해외/국내) ③ 축적된 여행시간 양(해외/국내)이며, 국내 여행의 경우 기억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최근 5년으로 기간을 제한하였다. 여행경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구분한 결과, 핵심 여행 동기로 신기성, 자극, 관계강화가 도출되어 TCP 모형의 일부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Song and Bae(2018)는 한국을 방문한 유학생의 여행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TCP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의 여행횟수를 바탕으로 여행경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핵심동기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중간층 동기는 덜 중요하고, 외부층 동기는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여행경력이 높은 개인의 경우, 중간층에 위치한 내적 여행 동기에서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의 동기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 TCP 모형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행경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행경력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 동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여행경력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하위요인이 부재하여 연구마다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한 여행경력 개념은 지난 여행경험 횟수, 목적지 수, 총 체류기간 등 행동적 측면의 과거경험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Filep & Greenacre, 2007; Pearce & Lee, 2005),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한 여행횟수도 연구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행경력 측정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여행경력 개념은 TCP 모형을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 수행되었으며, 여행경력에 따른 여행자 동기 변화에만 적용되어 여행경력 개념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Table 1〉 Travel career measurement item

| researcher | Constructs of travel career | main content |
|------------------------|---|---|
| Pearce (1988) | · Number of travel experiences in the past | · Development of the TCL (travel career ladder) model - Gradual changes in motivations according to travel career |
| Pearce & Lee (2005) | · Number of travel experiences in the past - international/domestic | · Development of the TCP (travel career patten)model - Development of the motivation pattern according to travel career |
| Filep Greenacre (2007) | · Number of travels (international/domestic) · Number of destinations (international/domestic) · Cumulative travel time (international/domestic) - Limited to the last 5 years | · Application of the TCP model - A study on the changes in travel motiva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
| Song & Bae (2018) | · Number of travels - Number of travels in the last 5 years | · Application of the TCP model - A study on the travel motivations of travelers visiting South Korea |
| Paris & Teye (2010) | · Number of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vel · Number of countries visited · Number of regions visited | · Application of the TCP model - A study on motivations of backpackers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avel career |
| Zhang & Peng (2014) | · Number of international travels - First, second, third, fourth time or more · Number of travels in the destination - First, revisit · Length of stay in the destination - Day trip, 2 days, 3 days, 4 nights or more | · Application of the TCP model - A study on travel motivations of Chinese travelers visiting Cairns |
| Lee & Ko (2012) | · Number of international travels - First, less than 5 times, 5 times or more | ·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 A study on differences in travel motivations depending on the number of travels among independent travelers |
| Lim & Lee (2010) | · Number of international travels · Total number of countries visited · Continuity of international travel · Subjective career assessment | · Application of the TCP model - Clustering based on international travel career, comparison of benefits sought |
| Ko (2019) | · Objective travel career - Cumulative frequency of overnight travel - Overnight travel for a year · Number of countries traveled · Subjective travel career - Travel continuity - Travel importance - Travel career expertise - Travel career size | · Changes in behavioral patterns of travelers depending on the travel career level |

Ⅲ. 여행경력 재개념화의 이론적 토대

1. 여행경험 개념과 연구동향

여행경력은 여행경험의 누적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여행경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행경험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강명보, 2018; 고동우, 2018; 김정훈, 2012). 여행경험은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크게는 여행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행자와 사회문화적 여행요소(여행지, 여행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심리적 차원에서 여행경험은 여행과정에서 여행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여행자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김동기, 2010; Otto & Ritchie, 1996). 여행경험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하는 활동이자 진정성과 다양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Li, 2000; Selstad, 2007). 즉, 여행경험은 여행자가 여행과정 중에 얻은 지식이나 정보, 감정 등을 의미하며, 여행을 하는 동안 물리적·추상적인 사물이나 형상을 접하게 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서 여행자가 지각하는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느낌, 행동들로 정의한다(고동우, 1998).

여행경험을 여행자와 여행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Stamboulis and Skayannis(2003)는 여행경험을 경험의 주체로서 여행자와 여행 목적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여행경험은 여행지의 다양한 환경 및 사회문화적 맥락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하는 매우 복합적인 결과물이다(Jennings, Weiler, & Nickerson, 2006). Moscardo(2009)에 따르면 여행경험은 여행객의 주관적 심리상황으로 여

행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고 이야기로 표현되는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드는 과정으로, 문화적 차이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얻어지게 된다(조강욱, 2016). 즉, 여행자는 여행지의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인지적 경험을 형성한다(Otto & Ritchie 1996).

여행경험의 구성요소를 파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경험은 크게 물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의 구성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물리적 측면은 여행지의 전반적 이미지, 여행지 수준, 편의시설, 역사·문화자원, 지역주민, 생활문화, 접근성, 가격, 사회적 교류 등이다(고동우, 1998; 박옥희, 2000; Iso-Ahola, 1983). 특히 지역 언어를 포함하여 지역민의 삶의 방식을 교감하는 것은 여행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Tung & Ritchie, 2011). 심리적 측면의 구성요인은 여행경험에서 여행자가 느끼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측정되었다. Neal, Sirgy, and Uysal(1999)은 여행경험을 자유(통제로부터의 자유/일에서의 자유), 관여(involve-ment), 각성(arousal), 숙달(mastery), 자발성(spontaneity)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심리적 측면의 구성요인으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개인적 관여, 자신감, 지각된 자유, 신기성, 각성, 재미, 몰입 등이 도출되었다(고동우, 2008; 한숙영, 2006; Bello & Etzel, 1985). 또한 Kim and Ritchie(2014)는 즐거움 경험, 일상탈출을 통한 삶의 활력 충전, 신기성, 지역문화 교감, 지식 습득, 자기성찰 같은 의미 있는 경험, 관여도 등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행경험'의 구성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여행경험의 다양한 속성을 규명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행경험의 축적을 통한 지식습득과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다(송영민, 2010; Gmelch, 1997; Kuh, 1995; Pearce & Foster, 2007). 선행연구에 따라

면, 여행자들은 여행경험을 통해 여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을 형성하게 되며,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통해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이 향상된다(Kuh, 1995). 또한 여행경험은 여행지의 문화와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습득시키고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통한 자기개발을 이룰 수 있게 한다(Gmelch, 1997). 결론적으로 여행경험은 여행과정에서 여행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인지적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에게 특별하게 의미화 되어 여행자의 심리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다.

2. 경력 개념과 연구동향

경력(career)은 직업과 직장생활과 관련된 모든 직무의 개념으로(Greenhaus, 1987; Hall, 2002; Werther & Davis, 1989), 개인이 일생동안 일과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 그 활동에서 지각된 일련의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된다(Hall, 1976, 2002). 반면 Super(1980)는 경력의 개념을 일과 직무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생애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고 수행한 총체적인 역할들의 조합'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였다. Herr(2001) 역시 경력의 개념을 일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사회·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총체적인 역할과 모든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Miller-Tiedeman and Tiedeman(1990)은 경력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부각시키며, 경력은 일과 삶에 대한 통합적 과정으로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설명하였다.

Van Maanen and Schein(1977)은 경력의 개념을 객관적 경력(objective career)과 주관적 경력(subjective career)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경력은 연봉, 직위, 직종 등과 같이 객관

적으로 평가 가능한 외재적 관점의 항목이며, 주관적 경력은 자기 가치와 정체성에 따른 경력 만족, 삶 만족과 같이 주관적이고 내재적인 평가에 근거한 관점이다(박순명·정철영, 2014; 이재은, 2015; Van Maanen & Schein, 1977). 후자의 관점은 경력의 개념을 객관적인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느낌을 모두 포함하는데(이재은, 2015), 최근에는 객관적 경력 보다는 개인의 가치실현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심리적·내재적 관점의 경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소병한, 2019; Russo et al., 2014). 즉, 개인이 축적한 객관적인 경험을 넘어 그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 및 평가까지도 경력의 중요한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다(Heslin, 2005; Russo et al., 2014).

경력(career)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경력의 개념은 일과 직업의 범위를 넘어 여가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며, 외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인식과 태도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경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주관적 여행경력의 맥락에서 여행자가 여행경험에서 지각하는 인지적 판단과 정서, 행동으로 여행경력 개념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

지속적인 여가참여에 대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학술적인 개념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이다. Bryan(1977)에 의해 처음 제안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개념은, '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의 연속체를 따라 진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특정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생각

의 진화를 수반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관여수준에 의해 진행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정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Bryan, 1977; Scott & Shafer, 200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에 따르면 여가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관심으로 시작해 매우 집중적인 관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동을 보여준다. 관련 이론은 참여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식과 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심리적 애착도, 참여도 등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본전제를 갖고 있으며, 일반참가자에서 전문적 수준이 높은 참가자로 발전하는 과정에 주목한다(Scott & Shafer, 2001).

Bryan(1977)은 전문화를 ① 드물게 참여하는 초보자 단계 ② 능력을 입증하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발전 단계 ③ 높은 수준의 몰입을 갖고 지식과 관련된 활동 등을 가지고 있는 단계로 구분한다. Scott and Shafer(2001)는 여가참여자들의 행동, 기술, 관여 등의 진전이 수반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특정 여가활동에 몰입하는 과정을 시작 단계(begging stage), 발전단계(establishment stage), 유지단계(maintenance stage), 쇠락단계(decline stage)로 제시한다.

한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다. Oh, Sutton, and Sorice(2013)에 따르면 특정 여가 참여자들의 전문화 수준은 각각 다른 패턴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전문화 단계로 진보하기 보다는, 중간 수준의 전문화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성을 보이거나 때로는 감소할 수 있다(김현정·박근수,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자가 축적하는 특정 성향의 경험이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다차원

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의 측면 보다 '경험의 축적'을 강조한다(이문진, 201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여가·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이론과 방법론, 경험적인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Oh & Ditton, 2008), 집단 내 개인차이(variation)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통해 동일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집단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관련 개념은 등산, 낚시, 캠핑, 탐조, 자전거 등 다양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용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전문화 수준에 따라 동기, 환경 및 장소 선호도, 태도 등 다양한 행동양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Bricker & Kerstetter, 2000; Galloway, 2012).

한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연속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 관련 현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연구로 인식되며, 전문화 측정방식에 대한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다(이문진 외, 2011). 전문화 측정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투자한 시간을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Scott & Shafer, 200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측정방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여가활동 참가 빈도, 과거의 경험, 금전적 투자, 사용하는 장비유형, 보유한 장비의 수 등 행동적 개념의 단일척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Bryan, 1977; Ditton et al., 1992). Bryan(1977)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여 표준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함으로써 일방향적 단일 차원의 전문화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전문화 수준을 완벽하게 측정하지는 못하였다(McIntyre & Pigram,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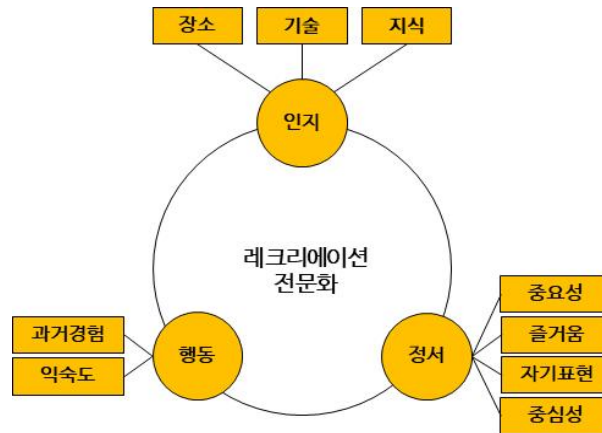
이후 Wellman, Roggenbuck, and Smith (1982)는 금전적 투자 정도, 과거경험 수준, 개인생활에서의 중심성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지수를 단일 차원으로 개발하였다. 행동개념의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전문화 측정방식은, 특정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전문화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linear)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참가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전문화 될 것이라는 기본전제를 갖고 있다(이문진, 2011; Whitmore, 2005).

하지만 여가 참여기간과 여가생활의 중심성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며(Donnelly, Vaske, & Graefe, 1986; Kuentzel & McDonald, 1992), 단일차원의 전문화 측정방식은 행동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차원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cIntyre, 1989; McIntyre & Pigram, 199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측정에 있어, 정서적 차원은 '지속적 관여'로 주장된다. 지속적 관여의 하위요인은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중요성, 여가활동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자기표현, 중심성과 같은 요인이다(McFarlane, 2004).

이후 연구자들은 과거경험으로 측정되는 행동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여가활동에서 축적하는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되는 인지적 차원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Bricker and Kerstetter(2000)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과거경험 수준, 기술·능력 수준, 생활의 중심성, 지속적 관여, 경제적 투자(장비 포함)로 개념화하여 측정하였으며, McFarlane(1994)는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Scott and Shafer(2001)는 행동, 기술, 관여 등이 증가할수록 행동은 전문화된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경향이 있고, 정서

적으로 더 개입하게 되면 될수록 전문화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측정하려는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문화 정도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지 않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이문진, 2011). McIntyre and Pigram(1992)이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다차원 구성 차원은 인지, 정서, 행동으로 개념화되었다. 관련 연구는 이후 McFarlane(1994), Scott and Shafer(2001)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 정서, 행동의 다차원적 측정을 통한 합산방식이 현재까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문진, 2011; Vaske & Needham, 2007).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초기 측정은 특정 행동을 단일 차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현재에는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구성으로 구분하여 관련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동적 측면은 참가 횟수, 참여시간, 참여빈도 등과 같은 과거경험, 사용하는 장비유형, 보유한 장비의 수, 금전적 투자, 구입한 잡지 및 책의 수 등 과거 여가경험에 대한 내용이다(Bryan, 1977; Ditton *et al.*, 1992; Martin, 1997; McFarlane, Boxall, & Watson, 1998). 인지적 측면은 여가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지식 습득 수준으로 구성된다(Bricker & Kerstetter, 2000; Lee & Scott, 2004). 인지적 접근은 지식이나 기술, 훈련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Lee and Scott(2004)은 지식과 기술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실증 연구로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은 '지속적 관여'의 개념으로 여가활동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여가활동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수준, 자기표현 수준, 여가활동 중심성으로 구성된다(McFarlane, 2004; McIntyre & Pigram, 1992). 이에, 이 연구에서는 McIntyre



Source: McIntyre & Pigram(1992).

〈Figure 2〉 Recreation specialization loop model

and Pigram(1992)이 제시한 전문화 수준의 세 가지 하위변인인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변인과 후속 연구들이 보완한 항목을 이 연구에 적용하여 개념적 틀을 가져가고자 한다.

IV. 연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여행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여행경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행경력’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측정도구 개발 절차 중 ‘개발계획 수립’을 준용하여(DeVellis, 2016) 여행경력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도출된 여행경력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를 비롯하여 여행자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여행경력 개념의 타당성을 확정하였다.

1. 문헌연구

구성개념을 정립하고 초기 문항을 도출하는

첫 단계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항목을 수집하고 내용을 재구성·변형하는 절차이다(김영국, 2008; 황희정, 2013; Hinkin, Tracey, & Enz, 1997).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여행경험과 경력, 여행경력,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개념을 구안하였다. 이후 도출된 여행경력 개념모형과 하위요인의 1차 전문가 의견조사가 실시되었다.

2. 여행경력에 관한 여행자 의견조사

다음 단계에서는 여행경력에 대한 초기문항 수집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항목을 참고하여 해외여행 경험자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 귀납적 접근방식으로 내용타당성을 확보해야하며(황희정, 2013),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항목이나 새롭게 조명해야할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다(김영국, 2008; 황희정, 2013; Hinkin *et al.*, 1997). 인터뷰 대상자는 다양한 해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는 일반인으로,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눈적 표집방식(snowball sampling)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꽤

키지여행과 개별여행 등 다양한 여행행태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도시를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여행행태는 개별여행이라 응답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여행경력 개념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여행경력 개념의 하위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질문으로 1) 여행경험이 축적되면서 여행의 동기나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여행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여행경험에도 경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지, 3) 여행경력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4) 자신의 여행경력을 설명하는데 연관되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5) 스스로의 여행경력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헌연구와 1차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념화 되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 partic ipant | age |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vel experience | | | |
|-----------------|-----|---|----------------------|------------------------|--|
| | | Countries and cities traveled | Major form of travel | Total length of travel | |
| A | 27 | · 18 countries, 48 cities(Turkey, Greece, Egypt, Germany, Belgium, France, Austria, Luxembourg, Switzerland, Spain, Italy, England, Ireland, Japan, Malaysia, Thailand, Australia, United States) | Independent travel | Around 200 days | |
| B | 32 | · 11 countries, 20 cities(United States, Philippines, England, France, China, Hong Kong, Macau, Spain, Thailand, Japan, Vietnam) | Independent travel | Around 120 days | |
| C | 27 | · 10 countries, 26 cities(Singapore, Hong Kong, Taiwan, Japan, Thailand, Malaysia, Australia, New Zealand, Finland, China) | Independent travel | Around 200 days | |
| D | 27 | · 26 countries, 44 cities(Japan, China, Taiwan, Hong Kong, Macau, Thailand, Malaysia, Singapore,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Russia, England, France, Netherlands, Belgium, Italy, Monaco, Spain, Germany) | Independent travel | Around 200 days | |
| E | 27 | · 2 countries, 15 cities (United States, Japan) | Independent travel | Around 60 days | |
| F | 36 | · 14 countries, 31 cities(Japan, China, Hong Kong, Macau, Taiwan, United States, Thailand, Indonesia, Singapore, Austria, Germany, Czech Republic, Vietnam, Cambodia) | Independent travel | Around 150 days | |

<Table 3> Characteristics of expert panel

| participant | field | workplace | major | academic background |
|-------------|------------------------------|---------------------|-----------------|---------------------|
| A | Leisure· Tourism field | Anyang university | Tourism | Ph.D |
| B | | Pai Chai university | Tourism | Ph.D |
| C | | Hanyang university | Tourism | Ph.D |
| D | | Dongseo university | Tourism | Ph.D |
| E | | Hanyang university | Leisure·Tourism | Ph.D |
| F | | Hanyang university | Tourism | Ph.D. candidate |
| G | | Hanyang university | Tourism | Ph.D. candidate |

었던 여행경력의 모형과 하위요인에서 세부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3. 전문가 의견조사

다음은 해외여행 경험자 인터뷰를 통해 수정·보완된 여행경력의 개념적 모형과 하위요인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여행경력 재개념화의 타당성을 확정하였다. 전문가는 총 4인으로 관광학 전공 박사 4인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0년 11월 1주~2주 동안 E-mail을 통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유선상의 검토를 거쳤다. 여행경력 개념모형에 대한 하위요인 행동, 인지, 정서 척도의 세부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리커트 5점 척도 '전혀 적절치 않다'(1점)~'매우 적절하다'(5점)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각 측정문항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의견을 주관식으로 요청하였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정량적인 적절성 평가와 기타 의견을 토대로 문항 정제를 실시하였으며 다시 관광학 교수 1인 및 관광학 박사과정 2인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V. 여행경력 재개념화

1. 문헌연구 결과

이 연구의 기초모형은 McIntyre and Pigram (1992)이 제시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모형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현재 여행경력 개념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초기 측정방식과 같이 행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었으며, 아직 일관된 개념과 하위요인이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론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질적 자료 수집과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의 개

념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여행경험, 경력, 여행경력,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개념을 구안하였다.

각 개념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경험은 여행과정에서 여행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인지적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행경험의 축적은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여행경험의 축적은 여행경력을 형성시킨다. 둘째, 경력의 개념은 개인이 축적한 객관적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과 평가까지 경력의 중요한 요소로 확대되었다. 즉, 경력의 개념을 여행경험에 적용함에 있어, 과거 여행경험(빈도, 횟수, 강도)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까지 포함한 여행경력 지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여행경력은 '전문성'(specialization) 수준을 반영한 개념이다. 정서적·인지적으로 형성된 여행경험의 축적에 따라 개인은 각기 다른 여행경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의 측정방식은 여행경력 개념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초기연구에는 행동 개념의 단일차원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였지만 현재에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구성 차원은 인지, 정서, 행동이며 (McIntyre & Pigram, 1992), 현재까지 다차원적 측정을 통한 합산방식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Vaske & Needham,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일 차원적 측정방법 보다는 다차원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또한,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지적 측면(기술, 지식)에 대한 논의는 여행경력 개념에서 논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경험을 통한

〈Table 4〉 Content analysis

| Classification | | Concept | Literature |
|--|--|---|---|
| Travel experience | Psychological dimension experienced by traveler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ychological response perceived by travelers during travel as well as subjective mental state · Knowledge, information, and emotions obtained by individuals in travel experience · Cognitive judgment, affective feelings, and behavior perceived by travelers | Jennings et al. (2006), Kim(2010), Ko(2018), Otto & Ritchie (1996), Stamboulis & Skayannis(2003), |
| | Interaction between travelers and sociocultural elemen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ing affective/cognitive experiences by interacting with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of the destination as actors of experience | |
| Career | Objective care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ems that can be evaluated objectively such as annual salary and position | Heslin(2005) lee(2015), Russo et al.(2014), So(2019), Van Maanen(1997) |
| | Subjective care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jective and intrinsic evaluation such as career satisfaction based on one's values and identity · Recently, people tend to value career from the psychological or intrinsic perspective that can be interpreted subjectively such as value fulfillment of individuals rather than objective career | |
| Travel career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term represents continuous trave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reflects the level of 'specialization' · Depending on the accumulation of travel experiences formed affectively and cognitively, individuals can have different travel careers, which induce change in their thoughts about travel or how they experience travel · More specifically, travel career changes the motivations of travelers and improves overall problem-solving skills including knowledge acquisition and decision making | Blichfeld & Nicolaisen (2010), Ko(2018, 2019), Kuh(1995), Otto & Ritchie(1996), Pearce & Foster (2007), Pearce & Lee (2005), Song(2010) |
| Recreation specializatio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process involves evolution of thoughts while constantly participating in a specific leisure activity, and it is a developmental process accompanied by progress in the behaviors of participants, knowledge and skills, and psychological engagement · It can be interpreted as accumulation of experience over time, as the participant accumulates a certain tendency of experience the longer they participate in a specific leisure activity, which shows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articipant | Bryan(1977, 2008), Kim(2018), Lee(2007), Scott & Shafer (2001) |
| Recreation specialization measurement method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ultidimensional system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is conceptualized as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and thus far, the aggregation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has been used as the most common method of measuring recreation specialization - 〈Behavior〉 Past experience in international travel, mastery, monetary investment - 〈Cognition〉 Information, knowledge, skill - 〈Affect〉 Centrality, importance, self-expression, enjoyment | McIntyre & Pigram (1992), Song (2010), Hwang et al. (2016), Vaske & Needham(2007), Manning(2011) |

지식습득과 개인의 능력 향상(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송영민, 2010; Kuh, 1995; Pearce & Foster, 2007)을 통해 여행경험의 인지적 측면은 여행경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도출할 수 있다.

2.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1차 전문가 검토의 주요 내용은 기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에서 사용된 전문화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여행경력에 적용함에 있어 여행경험만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들을 논의하고, 여행경력 개념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와 내용으로 재구성한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여행경력 초기모형과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5〉, 〈Figure 3〉).

3. 해외여행 경험자 인터뷰 결과

해외여행 경험자들은 다양한 여행경험의 축적을 통해 여행에 대한 동기나 생각, 여행방식의 다양한 변화 등을 언급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의 여행 국가는 2개국~26개국, 여행도시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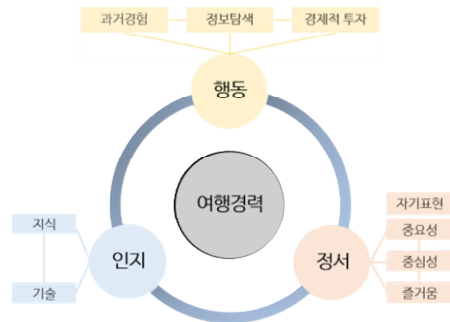
개~48개, 총 여행일수 누적은 60일에서 200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여행경험을 통해 향상된 해외여행 전 정보탐색 능력과 여행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능력을 여행경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외여행 경험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시사점은 여행경력은 개인의 주관적 경력 개념을 반영하며 지속적인 여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여행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주요 수정사항은 행동 차원 내 정보탐색 요인에서 여행 관련 여러 서적 보유 등 삭제, 온라인 콘텐츠 구독을 통한 정보탐색 추가 등이 있으며, 인지 차원 내 기술 측면에서 정보탐색 능력, 여행 중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정서 차원 내 자기표현 측면은, 여행경험이 축적될수록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으로 간주되어, 2차 전문가 조사 시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다.

4. 해외여행 경험자 인터뷰 결과

해외여행 경험자들은 다양한 여행경험의 축적

〈Table 5〉 Travel career operational definition

| dimension | subelement | definition |
|-----------|------------|--------------------------------|
| 행동 | 과거경험 | 과거 해외여행 경험정도 (참여기간, 빈도, 강도) |
| | 정보탐색 | 여행관련 콘텐츠 구독 및 서적 보유 등 |
| | 경제적 투자 | 해외 여행경험과 관련된 금전적 지출 |
| 인지 | 지식 | 해외여행에서 필요한 지식 정도 |
| | 기술 | 여행관련 정보탐색 능력, 현지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
| 정서 | 중요성 | 자신의 삶에서 해외 여행경험이 차지하는 중요성 |
| | 중심성 | 자신의 삶에 있어 해외여행과의 연관성 |
| | 즐거움 | 해외여행이 자신의 삶에 주는 즐거움 |
| | 자기표현 | 해외여행이 자신을 표현해주는 정도 |



〈Figure 3〉 initial model

을 통해 여행에 대한 동기나 생각, 여행방식의 다양한 변화 등을 언급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의 여행 국가는 2개국~26개국, 여행도시는 15개~48개, 총 여행일수 누적은 60일에서 200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여행경험을 통해 향상된 해외여행 전 정보탐색 능력과 여행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능력을 여행경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외여행 경험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시사점은 여행경력은 개인의 주관적 경력 개념을 반영하며 지속적인 여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여행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주요 수정사항은 행동 차원 내 정보탐색 요인에서 여행 관련 여러 서적 보유 등 삭제, 온라인 콘텐츠 구독을 통한 정보탐색 추가 등이 있으며, 인지 차원 내 기술 측면에서 정보탐색 능력, 문제해결 능력, 여행 중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정서 차원 내 자기표현 측면은, 여행경험이 축적될수록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으

로 간주되어, 2차 전문가 조사 시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다.

5. 2차 전문가 인터뷰 결과

문헌조사와 1차 전문가 조사, 일반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여행경력에 대한 초기 구성개념이 도출되었다. 이후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항목 간의 중복성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술 요인은 정보탐색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여행자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지식 요인 역시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지식, 효과적으로 여행을 하는 노하우 등의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의견으로 제시되어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한 정서 차원 내 자기표현 요인을 여행경력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즐거움 요인이 여행경력의 정서적

<Table 6> Themes and codes from interview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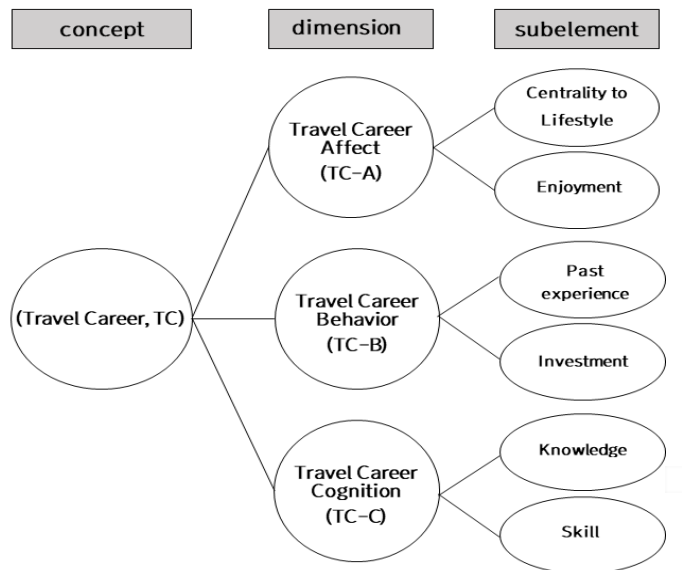
| category | main contents |
|-------------------------------|--|
| 해외여행 경험 축적에 따른 여행 행동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하는 해외여행 스타일이 확고해짐 · 한 번의 해외여행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공간적·내용적 범위 확실 · 여행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가 명확해짐 · 삶에서 해외여행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 · 해외여행에 투자하는 경제적 비용 증가 |
| 해외여행 경험축적에 따른 여행 동기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지(여행지)자체에서 주는 매력성과 신기성 감소 · 일탈성 중요, 휴식·기분전환 등 본인의 내적인 만족 중요 · 해외여행을 통한 자기과시 욕구 감소(기존 해외여행경험에서 모두 충족) · 현지문화·현지일상 체험 욕구 증가 |
| 여행경력 에 대한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목적지를 선택하는 소요 시간 감소 · 여행지 내 경험하고 싶은 구체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는 시간 증가 · 여행지 선택, 여행지 내 주요 활동 등 전반적인 여행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 |
| 의사결정 능력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준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 향상 · 여행지 내 다양한 상황을 접하며 문제해결능력 향상 · 여행지 내 현지주민·다른 국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
| 지식향상 및 여행기술 변화 | |

차원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논의를 거쳤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서적 차원은 '지속적 관여'로 주장되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가활동 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McFarlane, 2004). 따라서, 여행경력 정서 차원의 즐거움은, 지속적 즐거움의 개념으로 여행 후,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를 통해 여행경력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7〉 Definition of travel career dimensions and subelements

| category | concept definition | |
|--|---|---|
| 여행경력 (Travel Career: TC) | · 개인의 지속적인 여행참여를 나타내는 용어로, 여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개인의 특정 여행성향이자 주관적 여행전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개념 | |
| 여행경력 정서 (Travel Career Affect: TC-A) | · 중요성 (Centrality to lifestyle) | · 자신의 삶에서 해외여행 경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연관성 |
| | · 즐거움(Enjoyment) | · 해외여행 경험이 자신의 삶에 주는 지속적인 즐거움 |
| 여행경력 행동 (Travel Career Behavior: TC-B) | · 과거경험(Past experience) | · 과거 해외여행경험 정도(참여기간, 빈도, 강도) |
| | · 경제적 투자(Investment) | · 해외여행경험과 관련된 금전적 지출 |
| 여행경력 인지 (Travel Career Cognition: TC-C) | · 지식(Knowledge) | · 해외여행과 관련된 여행지식 정도 |
| | · 기술(Skill) | · 해외여행 관련 기술(정보탐색 능력, 현지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



〈Figure 4〉 Travel career-ABC: TC-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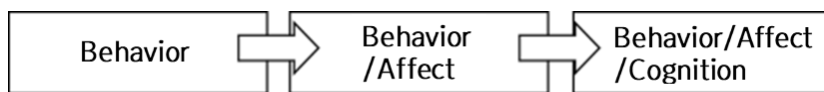
VI.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여행경력(travel career)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하위요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인의 여행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가환경에서 여행경력 개념의 유용성을 이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관된 여행경력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여행경력 개념이 관광학 분야에 처음 제시된 이후, 여행경력이 유발하는 여행자의 심리와 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특히, 여행경험의 누적에 따라 여행경력은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고, 축적된 여행경력의 수준에 따라 여행 동기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지속되어 왔다(고동우, 2018; Pearce, 1988, 1991, 1993; Pearce & Lee, 2005). 하지만 관련 이론의 효과와 영향은 연구마다 비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개념이 아직 체계적이고 타당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동우, 2018). 구체적인 선행연구의 한계는 1) 여행경력 개념의 비일관성 2) 하위요인에 대한 논의 부족 3) 여행경력을 ‘행동’, ‘정서’만으로 측정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여행경력에 대한 개념과 하위요인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여가학 분야의 전문화 이론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개념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여, 여행경력의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행경력은 ‘지속적인 여행의 참여를 통해 행동, 인지(지식·기술), 정서 등의 진전을 수반하며 축적된 개인의 특정 여행성향으로 여행전문화의 주관

적 수준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여행경력은 행동, 인지, 정서의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하고, 하위요인은 과거경험, 경제적 투자, 여행지식, 여행기술, 여행의 중요성, 여행의 즐거움으로 세분화 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여행경력에 대한 일관적 개념과 하위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일반인 인터뷰와 전문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여행경력의 개념을 보완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 단계에서 여행경력 개념의 유용성을 확인한 반면, 관련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경력 개념을 확장하였다. 여행경력에 대한 일관된 개념과 하위요인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가운데, 동일한 여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적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다양한 여가활동 연구에 적용되어온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을 여행경력에 적용하여(이진형, 2005; McFarlane, 1994) 여행경력 개념을 재개념화 하였고, 측정방식에도 진전(행동 → 행동, 정서 → 행동, 정서, 인지)을 이루며 여행경력의 구성개념을 확장하였다.

특히 여행의 지식과 여행기술을 포함하는 인지 차원은 여행경력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관광학 분야의 여행경력 구성개념에서는 관련 변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여행경력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동적 차원이 중심을 이루거나, 단순한 문항의 정서적 차원이 추가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행경력 개념을 인지적 차원을 포함한 행동, 정서, 인지의 다차원



〈Figure 5〉 Contribution of research: contribution to expansion of theoretical structure of travel career concept

으로 구성하여 개념화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명료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여행경력 이론을 적용하여, 여행자 동기, 여행자 행동, 여행 만족, 삶의 질 등 향후 다양한 요인과의 영향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여행경력 수준을 측정하고, 여행자의 심리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여행시장 세분화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Hwang, Young-Ju: Conceptualization, Literature Review and Writing(Original draft preparation), Lee, Hoon: Conceptualization, Supervision and Validation.

References

- Bello, D. C., & Etzel, M. J. (1985). The role of novelty in the pleasure travel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4*(1), 20-26. <https://doi.org/10.1177/004728758502400104>
- Blaney, R. (1998). *Ecotourists in Australia*. Occasional Paper. Canberra: Bureau of Tourism Research.
- Bricker, K. S., & Kerstetter, D. L. (2000).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22*(4), 233-257. <https://doi.org/10.1080/01490400950202285>
-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3), 174-187. <https://doi.org/10.1080/00222216.1977.11970328>
- Cho, K. W. (2016). *Explor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experience and autobiographical memory*. doctoral thesis, Kyunggi University, Seoul.
- Cooper, C., Fletcher, J., Fyall, A., Gilbert, D., & Wanhill, S. (2008). *Tourism: principles and practice*. 4. painos. Harlow: Pearson Education.
- DeVellis, R. F. (2016).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26)*.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Ditton, R. B., Loomis, D. K., & Choi, S. (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re-conceptualization from a social worlds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1), 33-51. <https://doi.org/10.1080/00222216.1992.11969870>
- Donnelly, M. P., Vaske, J. J., & Graefe, A. R. (1986). Degree and range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toward a typology of boating related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2), 81-95. <https://doi.org/10.1080/00222216.1986.11969648>
- Filep, S., & Greenacre, L. (2007). Evaluating and extending the travel career patterns model. *Tourism: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55*(1), 23-38.
- Galloway, S. (2012). Recreation specialization among New Zealand river recreation users: a multiactivity study of motivation and site preference. *Leisure sciences, 34*(3), 256-271. <https://doi.org/10.1080/01490400.2012.669690>
- Getz, D., & McConnell, A. (2011). Serious sport tourism and event travel career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5*(4), 326-338. <https://doi.org/10.1123/jsm.25.4.326>
- Gmelch, G. (1997). Crossing cultures: Student travel and pers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1*(4),

- 475-490. [https://doi.org/10.1016/s0147-1767\(97\)00021-7](https://doi.org/10.1016/s0147-1767(97)00021-7)
- Greenhaus, J. H. (1987). *Career Management*. Chicago: The Dryden Press.
- Hall, D. T. (1976). *Careers in Organizations*. Pacific Palisades, Calif: Goodyear Pub. Co.
- Hall, D. T. (2002).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Sage.
- Han, S. Y. (2006). The experience realms of heritage tourism: From the perspective of utilitarian and hedonic valu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0(3), 11-28.
- Herr, E. L. (2001). Career development and its practice: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3), 196-211. <https://doi.org/10.1002/j.2161-0045.2001.tb00562>
- Heslin, P. A. (2005). Conceptualizing and evaluating career succ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13-136. <https://doi.org/10.1002/job.270>
- Hinkin, T. R., Tracey, J. B., & Enz, C. A. (1997). Scale construction: developing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instrumen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21(1), 100-120. <https://doi.org/10.1177/109634809702100108>
- Hwang, H. J. (2013). *The construct and measurement of the fairness-oriented tourism: Based on the theory of justice*.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Hwang, S. H., Kang, H. K., & Lee, M. J. (2016). Absolute vs. Relative Scale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1), 589-599
- Iso-Ahola, S. E. (1983). Towards a social psychology of recreational travel. *Leisure Studies*, 2(1), 45-56. <https://doi.org/10.1080/02614368300390041>
- Jennings, G. R., Weiler, B., & Nickerson, N. (2006). Mediating meaning: Perspectives on brokering quality tourism experiences. In *Quality tourism experiences*, Elsevie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4(4), 469-486. <https://doi.org/10.4324/9780080455778-14>
- Kang, M. B. (2018). A Study on Development of Seriousness in Travel Scale. *Journal of Kyonggi Tourism Research*, 29, 79-91. DOI: 10.22959/jltr.2018..29.79
- Kim, D. K. (201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place by storytelling and composition factors of tourism experience*. doctoral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Kim, D. Y & Yoon, J. H.(2013). Heavy overseas travelers' travel motivation: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7(10), 33-52.
- Kim, H. J., & Park, G. S. (2018). Critical remodeling recreation specialization: Direction and path diversity of camping specializati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2(6), 101-126. DOI: 10.17086/JTS.2018.42.6.101.126
- Kim, J. H.(2012). *Impacts of rail cruise tourists' travel experience on their perceived novelty, tourism motivation, satisfaction and loyalty*.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Kim, J. H., & Ritchie, J. B. (2014). Cross-cultural validation of a memorable tourism experience scale (MT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3(3), 323-335. <https://doi.org/10.1177/0047287513496468>
- Kim, M. R. (2012).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flow according to subdivided level of participation: Focusing on serious leisure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Korean*

- Journal of Sport Science*, 23(3), 566-574.
DOI: 10.24985/kjss.2012.23.3.566
- Kim, Y. K, Seo, B. W., & Ahn, T. H. (2011). A study on market segment based on motivations to taste local foods: Focused on British tourist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5(5), 373-391.
- Kim, Y. K. (2008). Methodological trends for scale development techniques: The case of th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2(6), 297-315.
- Ko, D. W. (1998). The classification of post - evaluation concept of tourist experienc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2(2), 309-316.
- Ko, D. W. (2017). Structural influences of seriousness in travel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 travel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1(1), 159-181. DOI: 10.17086/JTS.2017.41.1.159.181
- Ko, D. W. (2018). Effects of travel careers on travelers' attitudes and psychological capabilit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2(7), 233-253. DOI: 10.17086/JTS.2018.42.7.233.253
- Ko, D. W. (2019). Variations of traveller's behavioral modes accompanied by travel career level: An application of fun-evolving mode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8), 159-181. DOI: 10.17086/JTS.2019.43.8.159.181
- Kuentzel, W. F., & McDonald, C. D. (1992). Differential effects of past experience, commitment, and lifestyle dimensions on river use specializ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69-287. <https://doi.org/10.1080/00222216.1992.11969893>
- Kuh, G. D. (1995). The other curriculum: Out-of-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2), 123-55. <https://doi.org/10.2307/2943909>
- Lee, J. E. (2015). *A study on the career success criteria of office workers in Korea*. doctoral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5). Recreational specialization research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for Leisure and recre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28, 67-78
- Lee, J-H., & Scott, D. (2004). Measuring birding specializati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eisure Sciences*, 26(3), 245-260.
- Lee, M. J., Park, I. H., & Hwang, S. H. (2011). Recreation specialization scale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4(1), 453-465. DOI: 10.51979/KSSLS.2011.05.44.453
- Lee, M. J. (2011). *Recreation specialization scale development: With outdoor recreation participants*. doctoral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Lee, M. J. (2017). A proces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in ski participa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1), 543-552.
- Lee, S. H., & Ko, D. W. (2012). Travel motivations of outbound free independent traveler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6(2), 201-220.
- Lee, U. L. (2004). Travel motivation and travel career pattern: A study on Australians. *Tourism & Leisure Reseach*, 16(4), 163-184.
- Li, Y. (2000). Geographical consciousness and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4), 863-883. [https://doi.org/10.1016/s0160-7383\(99\)00112-7](https://doi.org/10.1016/s0160-7383(99)00112-7)
- Lim, J. H., & Lee, G. H. (2010). Benefit sought market segmentation applying travel career profile model among Korean and Japanese overseas travelers. *International*

-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5(3), 39-60.
- Martin, S. R. (1997). Specialization and differences in setting preferences among wildlife viewers. *Human Dimensions of Wildlife*, 2(1), 1-18. <https://doi.org/10.1080/10871209709359083>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cFarlane, B. (1994). Specialization and motivations of birdwatchers. *Wildlife Society Bulletin*, 361-370.
- McFarlane, B. L. (2004).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site choice among vehicle-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26(3), 309-322. <https://doi.org/10.1080/01490400490461981>
- McFarlane, B. L., Boxall, P. C., & Watson, D. O. (1998). Past experience and behavioral choice among wilderness use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2), 195-213. <https://doi.org/10.1080/00222216.1998.11949826>
- McIntyre, N. (1989). The personal meaning of participation: Enduring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2), 167-179. <https://doi.org/10.1080/00222216.1989.11969797>
- McIntyre, N., & Pigram, J. J. (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reexamined: The case of vehicle-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14(1), 3-15. <https://doi.org/10.1080/01490409209513153>
- Miller-Tiedeman, A., & Tiedeman, D. V. (1990). Career decision making: An individualistic perspective.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 308-337.
- Moscardo, G. (2009). Tourism and quality of life: Towards a more critical approach.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9(2), 159-170. <https://doi.org/10.1057/thr.2009.6>
- Neal, J. D., Sirgy, M. J., & Uysal, M. (1999). The role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travel/tourism services and experience in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and overall lif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3), 153-163. [https://doi.org/10.1016/S0148-2963\(97\)00197-5](https://doi.org/10.1016/S0148-2963(97)00197-5)
- O'Dell, T. (2007). Tourist experiences and academic junctures.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7(1), 34-45. <https://doi.org/10.1080/15022250701224001>
- Oh, C. O., & Ditton, R. B. (2008). Using recreation specialization to understand conservation suppor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4), 556-573. <https://doi.org/10.1080/00222216.2008.11950152>
- Oh, C. O., Sutton, S. G., & Sorice, M. G. (2013). Assessing the role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in fishing site substitution. *Leisure Sciences*, 35(3), 256-272.
- Otto, J. E., & Ritchie, J. B. (1996). The service experience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17(3), 165-174. <https://doi.org/10.1080/01490400.2013.780534>
- Panchal, J., & Pearce, P. (2011). Health motives and the travel career pattern (TCP) model. *Asian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5, 32-44.
- Paris, C. M., & Teye, V. (2010). Backpacker motivations: A travel career approach.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 Management*, 19(3), 244-259. <https://doi.org/10.1080/19368621003591350>
- Park, O. H. (2000). *Study on the effects that the tour experience has on tourist attitud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Park, S.M., & Jung, C. Y. (2014). Trends in

- career research of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6(2), 149-181. DOI: 10.23840/agehrd.2014.46.2.149
- Pearce, P. L. (1991). Introduction: the tourism psychology convers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6(3), 145-146. <https://doi.org/10.1080/00050069108257239>
- _____. (1993). Fundamentals of tourist motivation. *Tourism research: Critiques and challenges*, 113-134.
- _____. (1988). *The ulysses factor: Evaluating visitors in tourist settings*. New York: Springer-Verlag.
- _____. (1996). Recent research in tourist behaviour.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1), 7-17. <https://doi.org/10.1080/10941669708721959>
- _____, & Foster, F. (2007). A "University of Travel": backpacker learning. *Tourism Management*, 28(5), 1285-1298. <https://doi.org/10.1016/j.tourman.2006.11.009>
- _____, & Lee, U. I. (2005). Developing the travel career approach to tourist motiv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3), 226-237. <https://doi.org/10.1177/0047287504272020>
- Russo, M., Guo, L., & Baruch, Y. (2014). Work attitudes, career success and health: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3), 248-258. <https://doi.org/10.1016/j.jvb.2014.01.009>
- Ryan, C. (1998). The travel career ladder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4), 936-957. [https://doi.org/10.1016/s0160-7383\(98\)00044-9](https://doi.org/10.1016/s0160-7383(98)00044-9)
- Scott, D., & Shafer, C. S. (2001).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 critical look at the constru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3), 319-343. <https://doi.org/10.1080/00222216.2001.11949944>
- Selstad, L. (2007). The social anthropology of the tourist experience: Exploring the "Middle Role".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7(1), 19-33.
- So, B. H. (2019). *Developing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and measurement for protean career*.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Song, H. S. (2015).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won tourists by applying travel career pattern model: A latent profile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9), 149-166. DOI: 10.17086/JTS.2015.39.9.149.166
- Song, H., & Bae, S. Y. (2018). Understanding the travel motivation and patt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Using the theory of travel career pattern.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3(2), 133-145. <https://doi.org/10.1080/10941665.2017.1410193>
- Song, Y. M. (2010). An analysis of cycle tourists' experiences using the grounded theo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4(1), 155-177.
- Stamboulis, Y., & Skayannis, P. (2003). Innovation strategies and technology for experience-based tourism. *Tourism management*, 24(1), 35-43. [https://doi.org/10.1016/s0261-5177\(02\)00047-x](https://doi.org/10.1016/s0261-5177(02)00047-x)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https://doi.org/10.4324/9781315792705-4>
- Todd, S. (1999). Examining Tourist Motivation Methodolog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4), 1022-1024. [https://doi.org/10.1016/s0160-7383\(99\)00038-9](https://doi.org/10.1016/s0160-7383(99)00038-9)

- Tung, V. W. S., & Ritchie, J. B. (2011). Exploring the essence of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4), 1367-1386. <https://doi.org/10.1016/j.annals.2011.03.009>
- Van Maanen, J. E., & Schein, E. H. (1977). *Toward a Theory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Cambridge,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Vaske, J. J., & Needham, M. D. (2007). Segmenting public beliefs about conflict with Coyotes in an urban recreation setting. *Journal of Park & Recreation Administration*, 25(4), 79-88.
- Wellman, J. D., Roggenbuck, J. W., & Smith, A. C. (1982).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norms of depreciative behavior among canoeis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323-340. <https://doi.org/10.1080/00222216.1982.11969529>
- Werther, W. B., & Davis, K. (1989). *Human resources and personnel management*. Harper San Francisco.
- Whitmore, J. G. (2005). *Investigating and reconceptualizing recreation specialization: Flow as a developmental influence*. Unpublished M.S Thesis, The University of MONTANA, Missoula, MT.
- Zhang, Y., Peng, Y. (2014). Understanding travel motivations of Chinese tourists visiting Cairns, Australia.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21, 44-53. <https://doi.org/10.1016/j.jhtm.2014.07.001>
- 광학연구, 22(2), 309-316.
- 고동우(2017). 여행의 진지성이 긍정심리자본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1(1), 159-181. DOI: 10.17086/JTS.2017.41.1.159.181
- 고동우(2018). 여행경력이 여행자 태도와 심리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 『관광학연구』, 42(7), 233-253. DOI: 10.17086/JTS.2018.42.7.233.253
- 고동우(2019). 여행경력 수준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 재미진화모형의 적용. 『관광학연구』, 3(8), 159-181. DOI: 10.17086/JTS.2019.43.8.159.181
- 김동기(2010). 『스토리텔링을 통한 장소성 인식과 관광경험구성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발행 박사 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 김동연 · 윤지환(2013). 해외여행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여행 동기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여. 『관광학연구』, 37(10), 33-52.
- 김미량(2012). 여가참여수준 세분화에 따른 여가만족과 여가몰입: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3(3), 566-574. DOI: 10.24985/kjss.2012.23.3.566
- 김영국(2008). 척도개발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동향: [관광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2(6), 297-315.
- 김영국 · 서보원 · 안태홍(2011). 향토음식 소비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영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5(5), 373-391.
- 김정훈(2012). 『레일크루즈 관광객의 여행경험수준이 신기성경험과 관광동기와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 김현정 · 박근수(2018).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비판적 재구성-캠핑 전문화의 방향성과 경로 다양성. 『관광학연구』, 42(6), 101-126. DOI: 10.17086/JTS.2018.42.6.101.126
- 박순명 · 정철영(2014). 국내 학술지의 경력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6(2),

국문참고문헌

강명보(2018). 진지성 여행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여가관광연구』, 29, 79-91. DOI: 10.22959/jltr.2018..29.79

고동우(1998). 관광 후 평가 개념의 경험적 구분. 『관

- 149-181. DOI: 10.23840/agehrd.2014.46.2.149
- 박옥희(2000). 『관광체험이 관광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 소병한(2019). 『프로티언 경력 (Protean Career)의 통합적 개념모형과 측정도구 개발』.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송영민(2010). 근거이론을 이용한 자전거 관광객의 경험분석. 『관광학연구』, 34(1), 155-177.
- 송화성(2015). 여행경력패턴 (Travel Career Pattern)에 따른 수원 관광객의 유형과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을 적용하여. 『관광학연구』, 39(9), 149-166. DOI: 10.17086/JTS.2015.39.9.149.166
- 이문진(201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 개발: 야외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문진(2017). 스키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 『한국체육학회지』, 56(1), 543-552.
- 이문진 · 박일혁 · 황선환(201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4(1), 453-465. DOI: 10.51979/KSSLS.2011.05.44.453
- 이상훈 · 고동완(2012). 해외 개별자유여행객의 여행 동기: 여행횟수에 따른 여행동기의 차이 분석. 『관광학연구』, 36(2), 201-220.
- 이재은(2015).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성공 준거에 관한 연구』.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진형(2005).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al Specialization) 연구: 미국의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방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67-78.
- 임지현 · 이계희(2010). 여행경력프로필(Travel Career Profile)에 따른 한국과 일본 여성관광객의 추구편의 비교 연구. 『관광연구』, 25(3), 39-60.
- 조강욱(2016). 관광경험과 자전적 기억 간 구조적 관계 연구. 미발행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서울.
- 한숙영(2006). 유산관광 체험영역에 관한 탐색: 실용적 · 헤도닉 가치의 관점에서. 『관광학연구』, 30(3), 11-28.
- 황선환 · 강형길 · 이문진(2016). 인문, 사회과학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절대적 vs. 상대적 척도. 『한국체육학회지』, 55(1), 589-599.
- 황희정(2013). 『관광의 공정성 지향 개념 구성과 척도 개발: 정의론에 근거하여』. 미발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